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양계인들 국산닭고기 수호에 앞장!

이마트 외 대형 할인매장 수입육 척결에 나선다!

매장에서 국내산 닭고기 사라진다

국내산 닭고기가 대형할인판매점에서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메이저급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일 매출 1천만원, 이용객수 평균 2천명이 오갈 정도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주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할인마트의 장점은 대량으로 물건을 취급하다보니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애용하고 있다.

할인마트에서는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마진을 높여려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닭고기가 값싼 수입닭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닭고기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양계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를 시작으로 수입닭고기 판매중단 요구에 나섰다.

이마트 수입닭고기 줄이는데 합의

(사)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대표적인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측에 수입닭고기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생산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달 4월 12일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등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부터 이마트 본점(성수)과 용산점, 은평점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요구의 강도를 높여갔다.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보이던 지난 4월 22일 이마트 본점에서 생산자들은 수입닭고기 판매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닭고기 가격하락과 장기불황에 따라 국내 양계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이마트가 수입닭고기를 판매하며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수입닭고기로 길들이는데 앞장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의 수입닭고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1인시위가 지역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이마트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기존에 수입, 판매하는 유통망을 한 순간에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4월 27일 이마트 성수동 본점에 집회를 신청하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마트측은 “앞으로 수입닭고기를 국산닭고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마트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사)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3개 단체는 이마트외에 다른 대형마트, 급식공급 업체 및 치킨업체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모든 수입닭고기를 취급하는 마트에 수입닭고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수익창출만을 위해 수입닭고기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국내시장은 쉽게 수입육으로 잠식될 것이다.

최근 3년간 닭고기 수입은 부쩍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월 1만톤까지 수입량이 늘면서 2010년에는 112,805톤, 2011년에는 118,707톤, 2012년에는 127,956톤으로 국내 생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금년도 1/4분기에 30,743톤이 들어와 지난해 26,419톤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는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고, 한·중 FTA는 협상이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이다. 국내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양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수입산을 막아내야 한다. 지역 마트나 매장에서 수입닭고기를 팔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양계협회 및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함께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마트외에 대형마트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양계업을 살리기 위한 생존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이마트 협상일지

- 3.12 성수동 본점 집회신청
- 4.5 1인집회 신청(이마트 성수점, 용산점, 미아점) 및 회사측과 협상
- 4.12 협상결렬 후 1인시위 강행
- 4.22 기자회견, 극적타결 후 집회취소
- 5월 이후 기타 대형마트 수입닭고기 판매현황 조사착수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나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에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준동 회장 / (사)대한양계인협회

- ▲ 1953년생(60세)
- ▲ 대한양계협회 제 18, 19대 회장(2008~현재)
-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초대 관리위원장 (2009.6~2011.5)
- ▲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2010.3~2011.3)
- ▲ 한국농민연대 공동상임대표(2011.3~2012.3)

(사)대한양계협회(이하 협회) 이준동 회장은 이번 전국양계인대회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양계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50년의 비전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각종 환경규제와 축산허가제 도입, 수입닭고기 증가 등으로 양계인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계열사, 양계농가 모두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50년 간 협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양계산업의 성장을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은 더 유용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수정하거나 개선시켜 나가 진정으로 양계산업을 위한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는 각오도 다졌다.



양계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비전 세레모니



인터뷰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 양계인의 단합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대회

국제화 시대, 수입닭고기를 이겨내는 특화된 닭고기제품 필요성 강조
농가들의 사육주권을 회복하는 수평계열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기를...

■ 2013년 전국양계인 대회의 취지와 성과는 무엇인지요?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962년 (사)한국가금협회를 시작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 반세기를 축하하며 ‘국제화시대, 새로운 도약 50년을 향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신라의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앞으로 관세가 서서히 철폐되면서 수입 축산물이 더욱더 밀려들 것으로 보이며, 한·중 FTA도 협상 중에 있어 우리 양계농가들에게는 어려움만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산닭고기 생산자들에게 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하여 향후 50년을 대비하고 양계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년고도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백년대계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과 양계농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여러분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숭고한 헌신과 적극적인 양계인대회 참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수직계열화보다는 수평계열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농가들의 사육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농가간의 수평계열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계농가는 계열사에서 주는 병아리나 약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병아리나 약품을 직접 고르는 등 모든 닭고기생산의 전 과정을 농가가 능동적으로 선택·운영함으로써 수평계열화를 이룬다면 농가의 사육주권도 회복되리라 봅니다.

또한 수평계열화를 한다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농가들이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가 2천 5백원이고 여기에 가공비 10~15% 정도를 첨가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통해 닭고기를 공급받으므로 보다 값싼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고, 농가들도 안정적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축산과학원에서는 원종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개발비용은 몇 천억원 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앞으로의 세계 식량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씨앗’은 국가가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원종계의 개발을 통해 현재 수입되는 원종계를 대체할 수 있다면, 농가들은 외국산닭고기를 뛰어넘는 특화된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 대형농가나 규모화보다는 특화된 강소농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이 밀려드는 외국산닭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닭고기제품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외국산과 차별없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서는 값싼 수입산에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생산비를 더 투입해서 차별화를 부여하고 우리만의 특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하여 더 높은 닭고기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국산 닭고기를 구매할 것이고 이로써 외국산닭고기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기업농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각종 유지관리비 등 부차적인 비용을 들여 대량생산을 할 수는 있으나 차별화된 농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혹은 부자지간에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가족경영을 하게 하면 그런 부차적인 비용문제가 해결되므로, 제품을 특화하는데 생산비를 집중하는 강점을 얻을 수 있어 차별화된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전남 해남에서 진행 중인 닭 검정소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현재는 허가 신청 중이며, 허가가 떨어지면 6~7월 쯤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토목공사를 하고나서 본 공사는 9~10월 쯤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닭 검정소가 중요한 것은 각 품종의 계군에 대한 성적을 매김으로써, 농가들이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성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공정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남 해남의 검정소에서 제시하게 될 다양한 닭 능력 검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닭사육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며, 향후 전 개할 양계산업의 지표를 삼을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H O T
ISSUE

전국양계인대회, “국제화시대, 새로운 도약 50년을 향하여!”

5월 3~4일 경주서 양계인 2천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



이준동 회장이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양계인의 대축제에 전국 2천여명의 양계인들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양계인들의 주권회복과 양계산업의 향후 50년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대한양계협회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3~4일 이틀에 걸쳐 천년고도 경주에서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도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사)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전국에서 양계인 2천여명이 모여 양계인의 단결된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양계인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협회가 창립된 지 50년의 세월을 지나오

면서 세계무대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양계산업이 발전한 것은 양계인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며, 이렇게 협회 50주년 양계인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감회에 젖었다. 또한 “앞으로 전업농과 가족경영농가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우리 닭고기도 판매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새 정부에서도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수입축산물의 위협과 AI 등 질병의 피해, 생산과잉과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에서 양계인들의 철저한 각성과 주권회복을 위해 함께 단결하고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에는 전종귀 사장과 윤금로 사장이 나섰으며, 앞으로 사육수수조절 및 안정화, 철저한 차단방역활동, 사육주권

회복을 위한 양계농가와 계열사의 단합, 차별화된 양계산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개선, 의무자조금 거출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제정된 제 1회 양계대상에는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7년간 전북도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양계산업발전에 기여한 박옥룡 前 전북도지회장이 선정되었으며, 양계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치는 것이 아쉬웠던 참석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양계인의 밤’ 행사를 뜨겁게 달구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사)대한양계협회가 양계산업의 50년 전통을 이어받고, 향후 50년의 재도약을 통해 타축종의 모범이 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협회와 계열사, 농가가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양계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산물 시식회, 큰 호응 이끌어내

경북도지회 회원 및 양계인 참여, 국산닭고기 우수성 알려

(사)대한양계협회는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둘째날(5월 4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양계산물 시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지회 회원 및 양계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천년고도 경

주로 모여든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구운 계란과 훈제치킨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다. 시식행사에서는 ‘닭먹고 힘자랑’, ‘알먹고 키자랑’ 글씨가 새겨진 가슴띠를 두르고 국산닭고기 제품을 홍보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양계협회’ 로고가 새겨진 풍선을 제

공해 협회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다양한 국산닭고기 제품을 시식한 경주 시민과 관광객들은 국산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풍부한 맛에 감탄했으며, 시식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풍성하게 마

무리될 수 있었다.



국산닭고기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북도지회 회원과 양계인들

양계인대회 대상 및 이모저모

▼ 행운권 추첨행사의 1등 당첨자 동양연지부 고유돈 회원(좌)



▲ 양계산물 시식회에서 받은 구운 계란을 맛있게 시식하는 아이들



▲ 제 1회 양계대상을 수상한 박옥룡 前 전북도지회(정우)와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좌)



▲ 1등 행운권을 추첨하는 김국록 경북도지회장 사모



▲ ‘닭고기자조금의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전종귀 사장(좌)과 윤금로 사장(우)

H O T
ISSUE

HACCP 교육비, 자조금 납부확인서 미리 제출하면 50% 지원

교육비 50% 지원...교육일정 참고해 적합한 일정에 참가 당부

정부가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명목 하에 식품위생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고 강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서는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대폭 변경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농민들이 HACCP 교육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닭고기자조금 사무

국에 제출하면 50%를 환급받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HACCP 교육대상자들이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미리 제출하면 HACCP 교육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HACCP 교육의 정원은 70명이며, 수강시간은 4시간, 교육대상은 가축사육 농장대표이다. 교육 프로그램

은 HACCP의 개요 및 필요성, HACCP 고시 해설,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교육주관 기관은 농협중앙회이며, 축산물위생교육원을 비롯해 각 지역 축협 및 중소기업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HACCP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우측>에 표시된 'HACCP 교육일정'을 참고해, 일정별·지역별로 적합한 HACCP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13년 축산농가 HACCP교육 일정

일정	교육장소	구분
5월 29일	축산물위생교육원	정기
6월 4일	함평축협	
6월 5일	천안축협	
6월 12일	제천농업기술센터	
6월 13일	상주축협	
6월 19일	보령시농업기술센터	
7월 3일	거창농업인회관	신규
7월 4일	침봉한우(질곡)	
7월 10일	안동축협	
7월 11일	강원산업경제진흥원	
7월 23일	축산물위생교육원	
8월 13일	보령시농업기술센터	
8월 14일	당진축협	정기
8월 28일	함평축협	
8월 29일	광주중소기업센터	
9월 4일	춘천축협	
9월 5일	상주축협	
9월 10일	축산물위생교육원	
9월 25일	함평축협	정기
9월 26일	천안축협	
10월 8일	축산물위생교육원	
10월 15일	상주축협	
10월 17일	강원산업경제진흥원	
11월 14일	축산물위생교육원	
11월 19일	광주중소기업센터	신규
11월 20일	상주축협	
11월 26일	안성농업기술센터	

농경연, 공급량 감소로 5월 육계 산지가격 1,600~1,800원/kg 전망

강제환우 증가로 1분기 육용 종계 마릿수는 15.6% 감소에 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6~7월 육계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도계마릿수와 수입량 감소로 5월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9,234만 마리로 전망했다.

우선 농경연은 5월 육계 축산관측정보를 통해, 5월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2.5% 감소한 7,160만 마리, 닭고기 수입량 전년보다 32.0% 감소한 9,872톤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이 도계마릿수와 수입량 감소로 5월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9,234만 마리로 전망했다. 반면, 농경연은 5월은 가정의 달 등 행사철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어린이날이 전년과 같이 휴일과 겹치면서 5월 닭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닭고기 공급량 감소와 수요증가효과 미비로, 5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15% 상승한 1,600~1,800원/kg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계별 종계 감축 사업에 따른 병아리 생산 잠재력 변화 추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단계 감축	104.0	115.1	120.4	114.8	106.2	99.2	102.5
1+2단계 감축	99.8	108.7	112.3	105.0	96.9	89.9	93.2
증감률(%)	-4.0	-5.6	-6.7	-8.5	-8.8	-9.4	-9.1

*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또한, 1단계 육용 종계 감축사업 시행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하락하였지만, 5~7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아직도 전년보다 1~4%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6~7월 도계마릿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6월 도계 마릿수는 최소 7,611만 마리 이상, 7월은 최소 9,704만 마리 이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며, 6~7월 닭고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도계 마릿수가 증가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이 전망한 6월 산지가격은 1,600원/kg, 7월은 1,650원/kg 이하로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경연은 3월 1단계 육용 종계 감축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제환우 증가로 1분기 육용 종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15.6% 감소한 117만 7천 마리에 그쳤다고 보았으며, 2단계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 실시 전에 기대했던 추가적인 4~10% 생산 잠재력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장기불황을 타개하고 닭고기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 및 계열사의 보다 양심적이고 적극적인 종계감축 사업에 대한 동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종닭협회, 권역별 AI 방역교육 실시



4월 24일 전남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토종닭협회 관계자

AI 대책 및 전통시장 단속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 높아

최근 중국에서 HPAI(H7N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월동

을 마친 철새가 국내로 넘어 온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은 신종 AI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통시장에서 LP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전체 토종닭 물량의 30% 가량을 산담으로 유통하는 (사)한국토종닭협회(이하 협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월 22일 경북 농업인회관, 4월 23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

트, 24일 전남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권역별 토종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이번 교육에 권역별로 농민 50~150여 명 정도가 참석해,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는 AI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감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현재 AI 발생현황 및 방역 대책, 토종닭 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민들이 HPAI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명목 하에 경찰이 전통시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한다

농촌진흥청, 해마다 2~4명 신규 수의사 대상 현장교육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새로 면허를 취득한 신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수의사들은 반려동물 전문 수의사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축산관련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 비율이 20%도 안 될 정도로 적다.

전국의 10개 수의과대학에서도 수의 해부학을 비롯한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의 강의가 반려동물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소(牛)와 같은 산업동물 전문 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신규 수의사들의 현장 임상(臨床) 경험이 적은 실정이다.

반려동물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산업동물 전문수의사가 되려고 하는 신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2~4명씩 젓소를 비롯한 가축의 전문적인 진료, 예방, 방역 등의 이론과 현장 경험을 접목한 교육을 10개월간 실시해 전문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부탐방

농가 방역교육 진행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당부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가 변해야 육계산업이 산다!



안병완 포천육계지부 지부장

4월 23일 포천육계지부 월례회의를 다녀왔다. 총 3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포천육계지부는 안병완 지부장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지부결속력을 높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농가의 경영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안병완 지부장은 계열화 사육형태가 정착됨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농가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값싼 수입산의 빠른 유입,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생산원

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입 장벽 완화로 인한 수입산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가들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안병완 지부장의 생각이다.

안병완 지부장은 "현재 사료가격이 kg 당 600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료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국산 닭고기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 있으며, 빠르게 계열화가 진행된 탓에 농가의 사육주권이 계열사로 치우쳐져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포천육계지부의 경우 회원의 95%가 계열화농가이며, 개인농가는 7가구 수준이라고 전한다. 이 때문에 사육비를 받고 육계를 사육하다보니, 생산원가 상승과 닭고기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을 우려해 안병완 지부장은 월례회의에서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회원농가를 상대로 몇 번이나 당부하였다.

포천육계지부 운영진은 포천지역에 타 축종을 포함해 가축사육마리수가 높다보니 지자체의 축산지원금액이 분산되어 포천육계지부에서 활용가능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배당된 지원사업에 농가의 참여가 부족해 불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농가가 변해야 한다는 안병완 지부장은 월례회에 포천시청 축산과 내수면환경팀 박민주 팀장을 초대해 축산분뇨법에 대한 운영방침과 육계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회원농가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포천 육계지부 월례회의에서는 매달 농가의 질병방역을 위해 다양한 약품업체의 협조를 얻어 농가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안병완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권익향상을 위해 방역교육을 시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타 지역보다 인정받는 육계사육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포천시청 축산과 내수면환경팀 박민주 팀장의 축산분뇨법에 대한 운영방침과 육계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육계질병가이드 /
육계의 IBH 발병사례와 관리방법

Q. IBH가 발병하는 농장입니다. 지난 계군에 이어 이번에도 17일 령부터 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수직감염인지 수평감염인지 알 수 있습니까?

A. 육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거의 대부분 종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계가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직감염인지 수평전파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령에 발병을 하고, 어떤 질병이 함께 동반이 되고, 이전에 발병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모두 점검되었다고 하더라도 종계에서 질병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는 완전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지난번 계군에서도 발병이 되었기 때문에 수평감염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군의 면역상태가 낮고 IBD나 콕시듐의 발병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더더욱 수평감염의 확률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몇 %가 수평감염이고 몇 %가 수직감염의 원인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종계에서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계군이 어떻게 변화되고 난계대 질병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수직감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난계대 질병은 8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almonella(추백리, 티프스, 파라티프스), Mycoplasma(MG/MS), IBH(아테노바이러스), CAV(전염성빈혈), REO(레오바이러스), ALL(림파구성 백혈병), REV(세망내피증), AE(뇌척수염)입니다. 종계 농장에서는 산란 중 감염에 의한 난계대 전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난계대 문제 질병에 대해서는 백신을 실시하여 높은 모체항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CAV, REO, AE, MG같은 질병은 백신이 있지만 IBH(아테노바이러스 감염증)같은 질병은 백신이 아직 상용화된 상태가 아니라 종계장에서도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난계대 질병에 대해서는 규정된 대응방안이 없으므로 종계와 실용계 농장 모두 차단방역에 집중하여 스스로 농장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juyoon@bansuk.biz 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올품, 친환경 닭고기 '자연에 좋은 닭' 소개

사육농가 친환경 및 HACCP 인증 획득 등 친환경 사육관리 시스템 완비

올품(대표이사 변무홍)은 친환경 닭고기인 <자연에 좋은 닭>을 시판하고 있다.

올품 유재상 팀장은 "자연에 좋은 닭"은 100% 친환경 사육으로 안전하며 One-Way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에 좋은 닭>은 아무 것도 넣지 않은 무항생제 제품으로, 첨단사육시설과 친환경조절계사를 통해 자연 그대로의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사육농가가 친환경 및 HACCP 인증을 획득해 더욱더 믿을 수 있다. 또한 생산이력관리를 적용하였으며, 깨끗함과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포장 패키지를 사용했다.

<자연에 좋은 닭>의 친환경 닭고기 사육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합성항균제와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친환경 사육농가 입추 시 정보를 기입하여

야 한다. 또한 농장 소독 및 구서 실시와 약품 및 백신 사용을 별도 기록하고, 친환경 사양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연에 좋은 닭> 제품으로는 백숙으로 요리하기에 좋은 '통닭', 통닭을 요리하기 쉽게 절단해 놓은 '닭볶음탕용', 다이어트에 좋은 '친환경 가슴살', 가슴살 안쪽에 있는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연한 순살 제품 '친환경 안심', 지방과 육질의 결합조직이 젤라틴으로 되어 있어 쫄깃한 맛을 내는 '친환경 윙', 날개의 위쪽 부분에 위치한 부위만을 절단한 제품으로 섭취하기 쉬운 '친환경 봉', 통다리 제품의 아래쪽 부위만을 절단한 '친환경 복채', 통다리 제품의 위쪽 부위만 절단한 제품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인 '친환경 정육' 등이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 서면결의 진행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4월 29일 서면결의를 발의해, 총 21명의 관리위원회의 서면결의를 진행하여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올바른닭고기정보제공(지역별)' '대의원활동 및 조직화 교육'의 예산이 '중계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사업' 3,000백만원 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예비비 537백만원 중 50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변경안 내역은 지난 4

월 18일 증액이 승인된 자조금사업비 5,263백만원 예산 중 예비비 537백만원에서 50백만원을 전용해 487백만원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예산 775백만원에 50백만원을 투입해 825백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 변경(안)이다.

닭고기자조금사업 예산 변경(안)의 법적 근거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4항과 고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 26조(예산 변경) 2항 및 4항, 5항에 두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AI 방역 소독시연은 봄철(4~5월)에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AI가 백로, 오리, 물떼새 등 철새들에 의해 우리나라를 거쳐 북상하고 있으며, 최근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저병원성 AI가 종종 검출되고 있어 방역예찰예방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AI(N7H9형) 인체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국내에 중국인 여행객도 증가(전년대비 38% 증가)하고 있어 국제 항만, 공항

에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협에서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농가 방역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방역예찰예방 활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상황실 318개소, 초등대응용 방역 비축기지 20개소, 공동방제단 40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대한양계협회



2013 전국 육계인토론회 개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는 육계농가들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설명회

5월 3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양계인대회"와 더불어 "2013 전국육계인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회 육계분과위원 및 전국 육계농가가 모인 자리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라고 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에 있으며, 최근 환경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추진상

황을 설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간의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축사거리제한 재설정을 위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연구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축산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으로 건폐율을 확대하고, 육계농가의 경우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방수처리 및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토록 함에 따라 많은 농가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각종규제로 인한 축산경영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데 모든 육계농가가 공감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육

예산변경(안) 개요

(단위: 천원)

사업 내용	2013년도 예산(안)				증감(B-A)
	본예산(A)	비중	변경(안)(B)	비중	
교육 및 정보제공	775,000	14.7	825,000	15.7	증 50,000
조사연구	100,000	1.9	100,000	1.9	-
수급안정	3,310,000	62.9	3,310,000	62.9	-
대의원선거	50,000	1.0	50,000	1.0	-
소비홍보	280,000	5.3	280,000	5.3	-
징수 수수료	12,500	0.2	12,500	0.2	-
운영비	198,500	3.8	198,500	3.8	-
예비비	537,000	10.2	487,000	9.2	△ 50,000
합 계	5,263,000	100.0	5,263,000	100.0	-

농협중앙회



농협, 남양만 철새도래지서 AI 방역 소독시연회 열어



AI 방역 소독시연회를 선보이고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은 지난 5월 3일(금)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철새도래지와 인근 양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시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이용한 소독시연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역시연을 실시했다.

계농가들은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내 축산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11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농가의 17,720호 중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7,925호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육계의 경우 41.6%에 달했다.

시장의 목을 죄고 있다고 밝히고, 산닭 종사자들이 경찰서에서 8~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강도높게 조사받는 것은 산닭

종사자를 살인, 절도, 사기 등의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한국계육협회



회원사에 도계장 위생관리 철저 당부

장비·도구·위생복 등 세척 및 소독 실시
축산물 작업장(도계장, 식육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장갑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본회 소속 회원사에 축산물 작업장에서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

도구 및 위생복·위생화·위생장갑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달렸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영업장 또는 업소의 장비·도구 등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 회원사에 전달하고, 도계장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장비·도구 등 위생관리 사항〉

- (작업개시전)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함
- (작업중)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 금지
- (작업후) 작업장 내 모든 장비·도구 등 세척 및 소독 실시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월간 닭고기 6~7월호 편집방향에 논의하고 있는 편집위원회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6~7월호 편

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6월호는 상반기 계육산업을 정리하고, 하반기를 전망하는 내용을 특집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협회, 산닭 종사자 단속에 강력반발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산닭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현 정부의 과도한 전통시장 단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토종닭협회는 현재 경찰이 정부의 불량식품 척결 원칙에 따라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있다고 지적하고, '일방통행식 행정'과 '단속을 위한 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산닭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를 꾸려가며 전통

전국 산닭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 방역을 위해 임시 휴일제를 도입한다.

지난 5월 3일 대구에서 열린 산닭유통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전통시장에서 LPAI가 검출되는 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권역별 방역교육, 매주 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 소독 등 AI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경기 북부에서 경상도까지 LP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논의했다.

분과위는 전국 상설장과 5일장을 포함한 모든 전통시장의 산닭을 모두 비우고 일제히 소독하는 임시 휴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AI 감염자와 사망자의 원발생지

를 전통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만 등 해외에서도 전통시장 임시 휴일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착안해 국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분과위는 5월 14일, 15일을 임시 휴일로 정하고 상설장과 5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내 산닭을 모두 비우고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에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난 4월 말 경찰청 상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일 내로 경찰청 수사과를 방문할 계획이라 말했다. 분과위는 4대 악(惡) 척결이라는 명제 하에 산닭을 불량식품인 냥 취급하며 단속하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외에도 '산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산닭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침체되어 있는 산닭 산업을 위한 많은 의견을 나눴다.

[성명서]

“산닭은 불량식품이 아니다!!”

토종닭 산닭 시장은 옛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전통이다. 특히 전체 토종닭 유통물량의 30% 가량을 소비하고 있는 산닭 시장은 토종닭산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닭 시장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악(惡) 척결을 선포한 정부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산닭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했는지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를 꾸려가며 전통시장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죽을죄를 지은 것도, 먹지 못할 식품을 판매하지도 않았음에도 경찰에 불려가 8시간, 10시간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산닭 종사자들이 즐지에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예로부터 토종닭은 보양식의 대명사로 동의보감, 마지 등 고서(古書)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토종닭을 먹고 배앓이를 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토종닭 몇 마리 잡아 팔아 부모공양하고, 자식 뒷바라지 해온 산닭 종사자들이 '못 살겠다' 외치는 절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것을 뜻한다. 서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단속을 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10만여 토종닭 종사자들의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경고한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을 볼모로 이와 같은 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전 토종닭 종사자는 물론 전 농축산인과 전통시장 종사자와 연대해 응징할 것을 밝히며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단속기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3년 4월 28일
(사)한국토종닭협회

전국 전통시장, 방역 위해 임시 휴일제 도입



일제 소독을 위해 임시 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산닭·유통분과위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속채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닭가슴살을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만든다면, 소아비만으로 걱정인 아이에게도, 다이어트하는 성인에게도 안심맛춤인 간식이 탄생 할 것이다.



재료 닭가슴살 1쪽(껍질 제거한 것), 치즈 50g(리코타 또는 피자치즈, 파마산 치즈가루), 시금치 50g, 계란 1개, 마른 허브가루 1작은 술, 구운 토마토 1+1/2개, 당근·호박 각 100g, 올리브유 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밀가루 50g, 옥수수가루 또는 빵가루, 소금, 후추

Cooking

1. 닭가슴살은 두꺼운 쪽으로 구멍을 내어 주머니를 만들어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다.
2. 토마토는 4등분하여 씨를 제거하여 기름을 넣지 말고 재빨리 구워 식힌다.
3. 데친 시금치는 마늘을 넣어 올리브유에 볶고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놓는다.
4. 노른자에 치즈, 허브가루를 섞는다.
5. ①의 닭가슴살 주머니에 준비해둔 구운 토마토, 치즈, 시금치를 꼭꼭 채워 넣고 밀가루, 계란흰자, 옥수수가루 순으로 묻혀준다.
6. 기름 두른 팬이나 오븐(180°C에서 5분)에 ⑤의 닭가슴살 주머니를 구워준다.
7. 당근과 호박은 길게 썬 채를 썰어 데쳐 소금 간하여 기름에 볶는다.
8. 속을 채우고 남은 시금치를 접시에 담아 장식하고 구워진 닭가슴살 주머니를 반으로 잘라 위에 담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9		
		8			10
				7	
2	3				
			5		6
4					

◇ 가로풀이 ✨ ✨

- ①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
- ② 늘 분주하게 떠돌아다니도록 된 액운
- ④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 ⑤ 4주령 이상 육성 중인 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생충병. 감염 시 초기에는 발열 및 체온저하증이 나타나며, 머리부위 벼슬이 흑자색으로 변함.
- ⑦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 ⑧ 아랫사람들이 젊은 부녀자를 높여 부르는 말
- ⑨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

◇ 세로풀이

- ① 동물이 항원에 노출되면 그 반응으로 동물 자신에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이 형성되는 것
- ③ 펌프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
- ⑤ 음흉하고 부정한 욕심이 많은 마음
- ⑥ 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거나 또는 장식용으로 방 안에 치는 물건
- ⑦ 미사일 등의 탄두부에 핵폭발 장치를 장착한 것
- ⑧ 짧고 작은 화살.
- ⑨ 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나는 기상 상태
- ⑩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47호 정답

	조	남		부	중
장		짜	이		중
삼	부		이		부
	부		삼	이	부
부	부			중	
중		삼	부	부	부

46호 정답

조	삼	모	사		육
견			기	린	아
표	백		충		
	내	천		묘	
연	장	선		경	사
문		장	미	계	

이번 호부터는 정답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양 계
비법전수

육계 육성 시 급수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급수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최근 용이한 깔짚 관리와 계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니플급수기를 선호하고 있다. 하이플로우 니플급수기는 분당 80~90ml의 물이 나오며 니플 1개당 12마리가 먹을 수 있다. 로우플로우 니플급수기는 분당 50~60ml의 물이 나오며 니플 1개당 1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일령에 따라 높이를 조절해주어야 하며 병아리 때는 병아리 등과 바닥이 35~45°

가 좋으며, 성장하면 75~85°가 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다. 중형급수기(직경 40cm)의 경우, 첫 모이 때에는 병아리 1,000수당 적어도 6개가 필요하며, 추가하여 보조급수기로 플라스틱 쟁반도 준비하여야 한다. 육계가 성장하여 사육면적을 확장할 때에는 1,000수당 최저 8개의 중형급수기가 필요하다. 개방형 급수기(중형·일차형 급수기)의

높이는 닭이 커감에 따라 적당하게 높여주어야 하며 병아리가 섰을 때 등 높이가 급수기 밑부분 높이와 같아야 한다. 급수기 내 물의 깊이는 급수기의 쟁반 상단에서 바닥으로 7~10일령까지 0.6cm, 10일령 이후에는 0.6cm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